

# 내적 충실...대사회 역할 미흡

## '97 4대종단 성과와 아쉬움

대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종단내 산적된 현안문제 해결에 분주했던 97년. 조계종과 천태종간의 화해를 되돌아 보며 성과와 아쉬움을 점검한다.

**조계종** 올해를 '전법의 해'로 정하고 전법의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했다. 서울 봉은사와 광주 함림사 등 6개의 사찰을 전법사범도량으로 지정하고 인천, 목포를 전법거점지역으로 정하는 등 전법의 기초를 세웠다. 미주 유럽 등 세계 5대륙에 전법거점사찰을 선정하는 것도 전법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 포석으로 꼽힌다. 또 전법 의지의 결집과 확산을 위한 종단 지도자회의를 개최해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 총책의 지도를 도출해 내는 노력도 보였다.

7월 초 종단의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인상 방침과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관람료를 분리징수하면서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 분리징수문제'는 법주사의 산문폐쇄 단행과 종단 각 기관의 강경대응으로 3개월간 정부와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결국 10월 14일 종단과 정부가 합의, 전면적인 산문폐쇄의 고비는 넘겼으나 정부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충돌할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조계종의 가장 큰 수확은 불교관계법

의 개정이 이뤄졌다는 것. 종단과 국외정각회들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3월 국회에서 전법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10월에는 시행령이 공포됐다. 또 11월 정기국회에서도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종단의 자주권이 상당부분 확보됐다. 그러나 전법사찰의 농지소유를 가능케 하는 농지법 개정안은 국회차원에서 다뤄지지 않고 농림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법개정의 내용을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종단 안팎에서는 적극적인 법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태고종** 올해를 종단발전을 위한 화해의 해로 정하고 발전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다. 태고종은 연초부터 지도부의 인식변화를 토대로 한 종력결집, 분구종식, 교육체계 확립 등을 내세워 종단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종단위상에 대한 위기감과 '변화 불가피론'의 내부목우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선암사에서 종단 간부·종진 연합 회를 열고 조계종으로의 증명환원, 동방대 선암사내 설립, 사찰분구 원전종식 등을 천명하는 등 예년에 볼 수 없던 급격한 사안들을 현안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이후 증명환원 의지는 실종됐고, 동방대 건립문제는 지난 11월 중앙총회에서 '수도권 일대 제2의 장소에 건

- 조계종** 국내외 전법 거점사찰 지정
- 태고종** 종단위상 강화 주력했지만...
- 천태종** 4년만에 새스님 50명 배출
- 진각종** '달한 종단' 이미지 벗기 노력

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지난 9월 실시된 행자소양시험에서 종단사상 최초로 38명을 탈락시키는 등 교육체계 확립 및 승려의 질적향상을 꾀하는 듯 했으나, 불과 한달새 이들을 모두 합격시킴으로써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천태종** 지난 8월 4년만에 수계식을 열어 51명의 스님을 배출하고 내부조직을 강화했다. 포교분야에서 단위 사찰별 활동이 약진하는 성과도 보였다. 특히 포교, 복지 등 총책의 다문화와 사회적 역할 모색에 대한 욕구가 내부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은 향후 천태종의 변화를 예측케 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종단최대 불사인 서울 관문사 불사는 예정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조계종과 선학원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사진은 11월20일 운영에서 열린 선학원 전국 분원장 회의.

## 입장차 못좁히고 '양극화'

해 넘기는 조계종 선학원 문제

**조계종, 연내처리 방침속 행보주시**  
**선학원, 19일 이사회 '정관개정 불가'**

조계종·선학원 문제가 양극화 기류만 심화시킨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선학원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 등의 조계종 요구사항에 따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선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운영에서 개최한 분원장 회의 참가자와 불참자에 대한 우편 설문 조사결과 대부분의 분원장들이 '조계종 정관 개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임원에 대한 징계에 행보를 같이하겠다'는

의견에 동조한 점을 감안 조계종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학원이 94년에 실시한 설문에서도 89%의 분원장들이 '정관 개정 불가'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따라서 조계종이 11월 밝힌 '일도양단'의 강경수를 철회하지 않는한 선학원은 임원에 대한 징계 등 종단 방침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 선학원은 교육기관설치, 수계제도 확립 등 자구책을 강구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선학원은 선학원

불교방송 재단이사회는 15일 제29차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도후스님(신홍사 주지)을 선임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여를 끌어왔던 직무대행 체제를 마감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사장 도후스님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경영정상화 및 공금회령사건 수습 대책 등을 들어본다.



- 불교방송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 다. 이사장 취임 후 가장 먼저 풀실 현안은.  
▲지금 방송국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 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우선 방송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앞으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도

## 수요 인터뷰 불교방송 새 이사장 도후 스님

## "경영정상화 우선 역점"

받고 방송 전반의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겠죠.  
- 그동안 이사장 후보로 여러 스님들이 거명됐었습니다만, 스님은 예상 밖의 인물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려운 때 일수록 역량이 있는 어른이 이사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원장 스님을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만 조계종 종헌 중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이사장 맡을 만한 역량이나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 하지만 저를 추천해 주신 다른 이사와 불교계 전통을 위해 불교방송 거

결의라는 것이 이런 사태에 대해 책임 지라는 경책의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기도 하구요. 무엇보다 경영정상화와 공금회령사건 수습에 힘쓰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장 선임 일정을 추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진흥원 쪽에서 사장 추천을 해오면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서 사장을 선임 해야죠. 늦어도 내년초면 해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 들려 주시지요.  
▲실추된 불교방송의 명예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수는 너그럽게 봐주시고 나태해 질 때 체크할질, 문제

## 빠른시일내 업무파악 공금회령건 마무리

가 생기면 방향제시를 해주시고 선의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단과 방송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앞장 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단의 뜻을 잘 받들고 방송국도 잘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재단을 운영하는 위치라기 보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마찰을 줄이는 중재자라고 생각하는만큼 불신받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책임질 부분인지 아닌지 파악해야겠지요. 필요하면 재단사무국 방송국 관련이사의 문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십니까.  
▲조계종 관련 이사가 사퇴하고 나면 이사회 진행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회

동이 트기엔 이른시각, 산사의 새벽에 불이 시작되는 시각, 19일 새벽3시. 역사적인 제15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은 김대중 후보의 당선소식을 전했다. 3시30분 KBS-TV는 김대중대통령당선자의 인생과 정치역정을 그린 '인동초의 고난과 승리'를 방영했다. 정치입문 43년, 대권도전 26년만에 이룬 그의 승리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인동초에 비유했다.

"21세기 번영의 꽃을 피우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김대중대통령을 만 들었다. 40대 기수로 대권에 도전하여 민주화를 열망하며 한걸음 걸어 온 그는 늘

그는 여러차례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선정됐다. 3선4기 끝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김대중. '敬天愛人' 그는 이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한다." KBS-TV는 김대중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을 위한 기도로 '인동초의 고난과 승리'를 마무리 했다.

이에 앞서 새벽3시가 채 못되어서 이회창후보는 당사에 나와 대국민성명을 내놓았다.

"김대중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지지해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은 당선자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풀어나가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당선자에게 축하화분을 보내겠다는 이회창후보의 '계묘한 승복'은 나라사랑에 승자와 패자가 없음을 보여줬다. 선거전에서는 온갖 흑색비방이 난무했지만 이제 남은 일은 국민 모두의 단결과 화합뿐이다.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온갖 고초를 맛보게 된다." 평화와 화합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이다.

## 목어 승자와 패자

인간 김대중, 그의 진실은 가리워졌지만 나라 밖에서는 알려져 있었다. 민중과 국가에 대한 애정과 꿈과 눈물의 결정체 평화주의자 김대중.

## 대한불교 조계종 북한산 국녕사 중창불사 모연문

귀의삼보 하옵고

능인선원이 호국도량 국녕사 중창불사를 시작합니다.

북한산 義相峯 남쪽에 자리한 호국도량 국녕사는 기록에 의하면 86간이나 되는 대가람이었습니다.

사명대사께서는 국녕사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국녕사가 무너지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5년여의 노력 끝에 빈 절터만 남은 국유지불 불하받아가람을 복원코자 중창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불교계에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누구든지 와서 정진하는 도량, 국운 융창을 기원하는 호국의 도량 중창불사가 사부대중이 수회 동참하는 원력이 담긴 도량이 되도록 설판의 장을 마련하오니 선근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중 · 창 · 불 · 사 · 개 · 요 ■

1차 대웅전, 수련원, 종각, 산신각, 일주문 건립

2차 불상조성, 목각탱화, 단청, 범종, 조경

- 기도장소 : 국녕사(북한산), 능인선원(서초동), 능인선원(포이동)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중창불사추진위원회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신도회,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능인선원, 능인회, 능인불교대학, 능인법사대학원
- 연 락 처 : 국 녕 사 ☎ 02-387-322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16-8번지  
능인선원 ☎ 02-554-841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12-404번지  
능인선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55번지  
☎ 02-577-5800 교환 241, 244, 245, 246 FAX.02-577-0052

대한불교조계종 국녕사 중창불사 추진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주지  
재단법인 능인불교선양원 이사장 ·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 이사장 지 광 합 장